



월드와치리스트 2024

기독교인의 종교적 자유 현황

월드와치리스트 2024 보고기간 2022년 10월 1일 - 2023년 9월 3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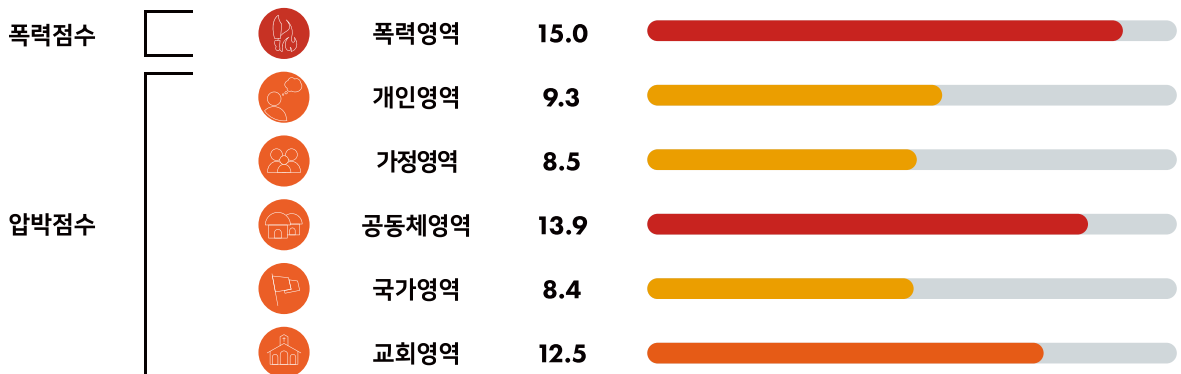
모잠비크(MOZAMBIQUE)

기독교 박해지국
39위



©Alamy

폭력과 압박의 정도



* 6개 영역 박해 지수는 영역 별로 16.7점을 만점으로 책정한다. 영역 별 총합은 100점이다(6x16.7=100)

중요한 발견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하며, 모잠비크에서 종교 자유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다.

첫째로, 특히 북부 지역의 급진적 이슬람주의자들의 존재는 기독교 공동체의 삶을 점점 더 위험하게 만들었다. 이 극단주의자들은 기독교 예배 장소를 공격하고, 종교 지도자를 납치하며, 수많은 신자들을 살해하는 등 폭력의 물결을 일으켰다. 이들의 활동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이슬람법의 엄격한 해석을 강요하려는 더 넓은 이데올로기적 캠페인의 일환으로, 기독교인을 특정하고 취약한 대상으로 만든다.

둘째로, 마약 카르텔의 영향력은 이미 긴장된 상황을 악화시킨다. 모잠비크는 국제 마약 거래의 중요한 중심지가 되었으며, 이는 카르텔이 국가의 다양한 지역을 통제하려는 이해관계를 가지게 했다. 사회 변화를 촉진하는 지역 지도자로 활동하는 교회 청년 지도자들은 폭력과 협박의 그물에 갇히게 된다.

셋째로, 정부의 종교 자유에 대한 입장은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공식적인 정책과 관행은 예배의 자유와 종교적 신념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제한한다. 교회는 행정적 장애물에 직면하며, 종교 교육에는 장애물이 존재하고, 기독교 신앙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면 종종 감시나 때로는 체포로 이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하디스트와의 전쟁이 계속되면서 상황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정부군이 급진 단체와의 폭력적인 충돌에 휘말리면서, 기독교인들은 교전에 휘말리게 된다. 그들은 극단주의 폭력의 표적이 될 뿐만 아니라, 군사 작전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피해도 겪는다.

모잠비크 (MOZAMBIQUE)

국가 정보

지도자 : 필리페 자신토 뉴시 대통령

인구 : 34,035,000명

기독교인 수 : 19,184,000명¹

주요종교 : 기독교

정부형태 : 대통령제



국가 상황

종교 상황	신자 수 (명)	비율 (%)
기독교	19,184,000	56.4
민종 종교	8,563,000	25.2
이슬람	6,067,000	17.8
불가지론자	128,000	0.4

출처²

모잠비크는 1975년에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하였다. 내전은 1992년에 당시 유일한 정당인 모잠비크 해방전선(FRELIMO)과 반군 모잠비크 민족 저항군(RENAMO) 사이의 유엔 중재 평화 협정으로 끝났다.

그 후 안정적인 경제 및 정치적 발전이 뒤따랐으나, 2012년 이후로 FRELIMO와 RENAMO 간의 긴장과 폭력이 재발하면서 상황이 악화되었다. 2019년에는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후에도 프레리모가 정권을 유지하면서 다시 싸움이 벌어졌다.

2017년 10월부터 이슬람 무장세력에 의한 북부 지역에서의 반복적인 공격이 발생하여 많은 기독교인이 살해되고 기독교인의 집이 불타버렸다.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알-순나 와 자마아(ASWJ)는 기독교 상징물의 제거를 요구하며, 카보 델가도 주의 일부 지역에서 기독교인의 집을 공격했다. 기독교인들은 지하디스트의 표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집을 떠나야 했다. 남아프

¹ 정보출처: Todd M. Johnson and Gina A. Zurlo, eds., 세계 기독교 데이터베이스 (Leiden/Boston: Brill, 2023년 3월 접속)

² 정보출처: Todd M. Johnson and Gina A. Zurlo, eds., 세계 기독교 데이터베이스 (Leiden/Boston: Brill, 2023년 3월 접속)

리카 개발 공동체(SADC)와 르완다의 연합군(다른 국가의 고문들과 함께)은 지하디스트를 물리치는데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지하디스트의 영향력은 정부와 동맹국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남부로 확산되고 있다.

남아시아 이민자 인구와 북부 지방은 특히 해안 지역에서 주로 무슬림이지만,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는 기독교 공동체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 기독교인은 남부 및 중부 지역에서 더 많지만, 무슬림도 이 지역에 살고 있다.

미국 국무부(IRFR 2021)에 따르면, 모잠비크에는 로마 가톨릭, 복음주의/오순절 기독교, “시온주의 기독교” 및 성공회 교단(교단 크기 순) 교회가 존재한다.

지역 별로 상황이 어떻게 다른가

기독교인에 대한 인권 침해는 이슬람 국가(IS)와 연계된 무장 세력이 폭력적인 공격을 수행하는 북부 카보델가도 주에서 가장 심각하다.

누가 영향을 받는가?

해외 거주 기독교인 공동체들

이 범주는 WWL 점수와 분석에 포함되지 않는다.

역사적 기독교 공동체들

역사적 기독교인으로는 로마 가톨릭, 성공회와 정교회가 있다. 이들은 종종 알 수나 와 자마 무장 세력의 표적이 되었다.

기독교 개종자들

이러한 박해에는 이슬람교 또는 전통 아프리카 종교에서 개종한 사람들과 기독교 그룹 간의 교파 간 개종자가 포함된다. 개종자가 무슬림이 지배적인 북부 지역에 사는 무슬림 배경을 가진 경우, 박해는 더욱 심각해지며, 이러한 개종자는 급진적인 무슬림의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비전통적 기독교 공동체

비전통적인 기독교 공동체에는 침례교인과 오순절 교인이 포함된다. 전도에 집중하기 때문에 이 교회에 속한 기독교인들은 정기적으로 위협과 공격을 받는다.

박해와 차별의 주요 원인

이슬람의 억압

2017년 이후로 IS와 연계된 이슬람주의 단체 알-순나 와 자마아(ASWJ)에 속한 무장 세력에 의한 기독교인에 대한 반복적인 공격이 발생하여 수천 명이 집을 떠나야 했다. 이 무장 세력의 능력과 영향력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 단체들은 마약 카르텔과의 협력을 통해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일부 국가 관리들과의 부패를 통해 지원을 받고 있다.

민족 종교적 적대감

외딴 지역에서는 토착 신앙을 따르는 사람들이 기독교 전도 활동의 증가를 위협으로 간주한다. 그 결과, 부족 지도자들은 종종 이러한 교회 활동에 대해 불평한다.

독재적 편집증

모잠비크 정부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다. 여전히 억압적이며 일부 교회에 정부 정책을 지지하도록 압력을 가한다. 헌법은 공공 교육 기관에서 모든 종교적 영향을 금지하고 있다. 일부 당국은 종교 단체에 번거로운 등록 요건을 부과하기도 한다. 정부는 북부 모잠비크의 폭력 상황에 대한 보도를 제한한다.

조직적 부패 및 범죄

모잠비크는 조직 범죄 수준이 높으며, 마약, 무기, 상아와 같은 불법 야생 동물 제품이 항구에서 광범위하게 거래된다. 이슬람주의 단체 알-순나 와 자마아는 이 단체의 활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 거래에 관여하고 있다. 카르텔은 청소년 및 범죄 조직과 관련된 일을 하는 교회를 위협하고 폭력을 행사한다.

남성과 여성이 받는 영향은 어떻게 다른가?

여성

기독교 여성과 소녀들에게 가장 흔한 인권 침해는 성희롱, 강간, 강제 결혼입니다(모잠비크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조혼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이슬람 무장 세력의 침입에 기인한다. 지하디스트와 그 세포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에서는 납치가 흔하다. 소녀들은 강제 노동에 사용되며, 여성들은 성적 착취와 가사 노동에 이용된다. 무슬림 또는 아프리카 전통 종교 배경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강제 결혼, 상속권 박탈, 자녀 양육권 상실과 같은 가족의 압력에 취약하다.

여성이 전형적으로 겪는 압박 지점들:

- 납치
- 자녀 양육권 거부
- 상속 또는 소유권 거부
- 강제결혼
- 인신매매
- 폭력 - 신체적 / 성적

남성

이슬람 억압은 극단주의 이슬람 반군의 역할로 인해 모잠비크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가장 흔한 박해 형태이다. 기독교 남성과 소년들이 공격에서 살해되거나 농지와 재산을 잃어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어린 소년들은 강제로 민병대에 징집되기도 한다. 한 국가 전문가에 따르면, "반군이 공격할 때마다 주로 남성과 소년들을 표적으로 삼아 공동체에서 전투원을 모집하려고 한다."

남성이 전형적으로 겪는 압박 지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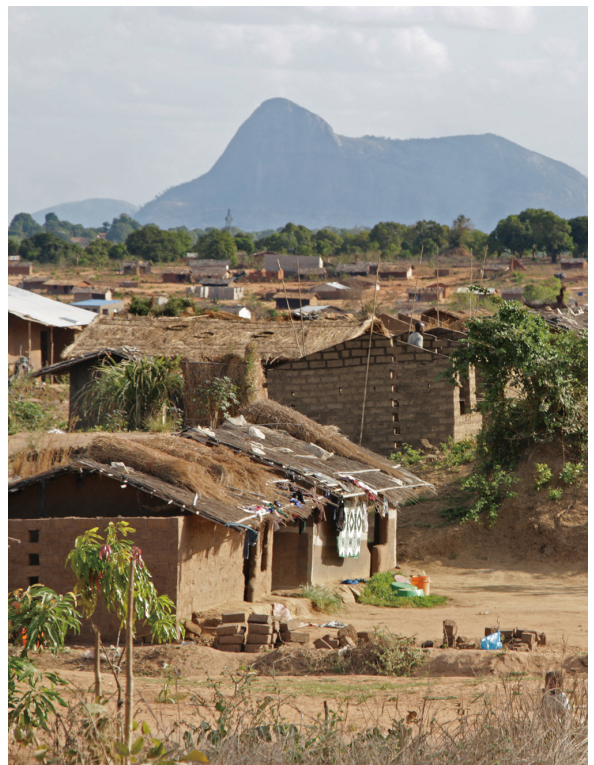
- 군대 / 병역 징집 / 양심에 반하는 복무
- 폭력 - 사망



월드와치리스트 5년 동향

월드와치리스트 연도	오픈도어 월드와치리스트 순위	100점 만점에서 반올림한 박해점수
2024	39	68
2023	32	68
2022	41	65
2021	45	63
2020	66	43

WWL 2023 보고 기간 동안 모잠비크는 3점 증가하여 68점을 유지했다. 그러나 WWL 2024에서는 점수가 정체되어, 특히 북부 지역에서 지하디스트 활동이 지속되는 가운데 압력과 폭력 수준이 계속 높았다. 르완다와 남아프리카군의 노력으로 지난 2년 동안 여러 도시와 마을을 이슬람 무장 세력으로부터 탈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향력은 여전히 강력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 마약 카르텔의 존재는 기독교인의 삶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으며, 특히 청소년 참여를 중심으로 한 교회 활동을 방해했다. WWL 2023에서 15.6점에서 WWL 2024에서 15.0점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폭력은 여전히 극심한 수준을 유지하여 특히 기독교인들에게 지속적인 도전 과제를 나타냈다.



보고 기간 동안의 폭력 사례들

- 2023년 2월 4일: 기독교 마을 모일로에 대한 공격이 발생했다. 마을 주민들은 도망쳤고, ISIS 요원들은 약 20 채의 집에 불을 질렀다.
- 2023년 2월 4일: 마코미아-빔바 도로에서 기독교인 시민의 차량이 매복을 당했다. 한 명이 사망하고 두 명이 부상을 입었다. 차량 두 대가 불에 탔다.
- 2023년 2월 6일: 나마키울의 기독교인 마을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졌다. ISIS 대원들과 모잠비크 정부에 충성하는 현지 민병대 전사들 사이에 총격전이 벌어졌다.

월드와치리스트 연도	살해된 기독교인	기독교인의 사유 재산이 훼손되거나 압수된 경우	기독교인의 사업재산이 손상되거나 압수된 경우	공격받거나 폐쇄된 교회 또는 기독교 건물
2024	100*	100*	100*	10*
2023	100*	100*	100*	100*

이 표에는 보고 기간 동안 발생한 신앙 기반 폭력의 몇 가지 범주만 포함되어 있다. 전체 결과는 전체 국가 보고서의 폭력 섹션을 참조하면 된다. 많은 사건이 보고되지 않기 때문에 숫자는 최소한의 수치로 이해해야 한다. 정확히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상징적인 대략적인 수치(10, 100 또는 1000*)가 제공되며 실제로는 훨씬 더 높을 수 있다.

개인 영역

이슬람 무장 세력의 영향력 아래 있는 북부 지역에서는 기독교인(특히 무슬림 배경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신앙을 숨기거나 공격 또는 살해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견을 억제할 것이다. 교회는 탈식민지 시대의 민주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현재 논의 중인 새로운 법안을 통해 종교에 대한 더 엄격한 통제를 추구하고 있다.

가족 영역

지하디스트의 확장이 일어나고 있는 북부 지역에서는 특히 정부군이 철수한 지역에서 기독교인으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위험하다. 지역 사회와 학교 내에서도 기독교인들은 괴롭힘과 차별의 피해자가 된다. 또한, 가톨릭이 우세한 일부 지역에서는 복음주의자들의 자녀들도 유사한 어려움을 겪는다.

교회 영역

기독교 설교는 종종 정부 비판의 징후를 찾기 위해 당국에 의해 감시되며, 지하디스트들은 북부 지역의 모든 교회 활동을 감시하고 있다. 정부는 교회 허가증 발급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으며, 종교 문제를 규제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논의 중이다. 르완다의 법과 유사하게, 정부는 공식적으로 훈련된 교회 지도자를 원하며 소규모 교회 그룹의 확산을 방지하려고 한다.

공동체 영역

기독교 여성과 소녀들은 북부 지역에서 이슬람 반군에 의해 납치될 위협에 처해 있다. 종종 마을이 습격된 후 납치가 발생한다. 카보 델가도에서는 이슬람 반군이 인식하는 무슬림 종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독교인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국가 영역

북부 지역에서는 많은 교회와 기독교 상징물이 훼손되었다. 정부는 인권과 같은 문제에 대한 교회의 반대 의



국제적 의무 및 권리에 대한 위반

모잠비크는 다음 국제 조약에 따라 기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것을 약속했다: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2. 고문 및 기타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에 관한 협약(CAT)
3. 모든 형태의 여성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CEDAW)
4.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RC)

모잠비크는 기독교인의 다음 권리를 정기적으로 침해하거나 보호하지 않음으로써 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 북부 지역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신앙 때문에 살해된다 (ICCPR 제6조).
- 기독교 여성들은 강간과 납치의 피해자가 된다 (ICCPR 제7조).
- 기독교 어린이들은 신앙 때문에 살해된다 (CRC 제2조).
- 기독교 여성들은 강제 결혼을 당한다 (ICCPR 제23조 및 CEDAW 제16조).
-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북부 지역에서 차별과 폭력을 겪는다 (ICCPR 제18조 및 제26조).



이외 소수 종교집단의 상황

다른 소수 종교(힌두교, 불교, 유대교 등)는 대부분 외국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집단에 대한 특정한 박해는 없다. 그러나 IRFR 2020에 따르면, 2019년에 제안된 종교 관행에 관한 법안이 연말까지 의회에서 계류 중이며, 이 법안이 팔로워가 500명 이하인 종교 단체가 법무부에 등록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소규모 종교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등록 요구 사항이 조직 등록을 방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종교 지도자에 따르면, 이 법안 초안은 또한 팔로워가 공증인에게 신원을 증명받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종교 활동에 행정적 장벽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 이 법안 초안은 여전히 검토 중이다.

상당수의 인구가 여전히 전통적인 아프리카 종교를 따르고 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외딴 지역에 살고 있으며 박해에 대한 보고는 없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있다.

오픈도어의 모잠비크 사역

오픈도어는 2020년부터 모잠비크 교회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북부 지역에서 증가하는 지하디스트 폭력에 영향을 받은 기독교인들에게 긴급 지원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원 활동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 문화 간 인식 교육
- 박해 대비 교육
- 경제적 역량 강화

